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 농수산물 수출

## Zoom In 101호

I

마늘 신제품 '홍산' 싱가포르 첫 수출 길 올라



II

한여름 더위에도 잘 자라는 여름딸기 '미하' 현장 평가회



III

2022/2023 시즌 배 생과실 수출검역단지·과수원 목록 미국 제공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1호 2022. 9. 1(목)

‘22.8.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81.8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b>1.7%</b> 989.7백만불	  <b>9.4%</b> 4,972.1백만불	  <b>27.8%</b> 2,221.2백만불
+ 닭고기, 배, 고추, 포도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딸기	+ 면류, 과자류, 음료, 주류 - 켈런, 소스류	+ 김, 참치, 명태, 대구, 연어, 굴 - 어묵, 오징어, 전갱이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b>미국</b> 재고관리,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가공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증가세 둔화 1,153.8백만불(6.9%↑)	+ 김치(8.1%), 배(68.3%) 음료(24.3%), 라면(16.4%) - 버섯(△16.3%), 닭고기(△9.7%) 소스류(△3.7%),
  <b>중국</b> 수입상온화물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로 가공 회복세이며 수산 증가세 지속 1,455.3백만불(18.2%↑)	+ 명태(292.9%), 라면(28.6%), 조제분유(10.9%) - 인삼(△24.3%), 밀(△4.1%)
  <b>신남방 (ASEAN + 인도)</b>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관광 재개, 일상 소비 회복되면서 신선, 가공, 수산 증가세 지속 1,727.0백만불(15.1%↑)	+ 참치(35.7%), 음료(23.5%) 닭고기(108.9%), 인삼(46.3%), - 딸기(△6.3%), 리큐르(△23.1%)
  <b>일본</b> 가격경쟁력 약화되어 신선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나 가공 전체 증가세 견인 1,486.3백만불(9.8%↑)	+ 인삼(14.6%), 연초류(34.5%) 과자류(33.3%), 김(7.2%), - 파프리카(△9.2%), 김치(△24.9%) 참치(△5.5%), 라면(△7.7%)
  <b>EU + 영국</b> 물류난 가중되고 있으며 휴가철 발주량 감소로 전체 증가세 둔화 534.2백만불(18.8%↑)	+ 김치(3.4%), 과실류(10.4%) 라면(15.4%), 참치(26.7%) - 버섯류(△20.4%), 김(△9.2%)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101호 2022. 9. 1(목)

##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8.31

### □ 인삼

- (중국 44.6, △24.3) 주요 수입항 상하이의 경제활동 재개로 감소세 완화 지속
- (베트남 27.8, 64.8↑) 합리적인 가격과 섭취의 편의성을 높인 간편 소비제품 인기
- (미국 22.4, △0.0) 최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바이어 발주량 감소

**153.0백만불 (△2.7%)**

주요 수출국 : 중국(44.6백만불, △24.3%), 베트남(27.8, 64.8%), 미국(22.4, △0.0%), 일본(22.0, 14.6%), 대만(12.8, 8.4%), 홍콩(9.4, △35.6%)

### □ 장류

- (미국 17.6, △6.1) 재고 누적으로 수입 물량 조절하면서 감소세
- (중국 8.8, △13.2)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가 반복되면서 통관·물류 애로 및 소비·판매 감소
- (필리핀 4.4, 29.2↑) 성수기 소비 활성화 및 B2B 수요 증가로 인한 대용량 제품 중심 수출 증가

**66.8백만불 (△2.6%)**

주요 수출국 : 미국(17.6, △6.1%), 중국(8.8, △13.2%), 일본(5.3, △1.0%), 필리핀(4.4, 29.2%), 캐나다(4.0, 31.9%), 베트남(3.1, 30.3%)

### □ 배

- (미국 10.8, 68.3↑) 전년 대비 이른 추적으로 8월 초 조생종 배 수출 시작되면서 증가세
- (베트남 3.7, 176.4↑)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K-POP 열풍 등으로 배 수요 증가세

**25.5백만불(57.1%↑)**

주요 수출국 : 미국(10.8, 68.3%), 대만(8.1, 26.3%), 베트남(3.7, 176.4%), 홍콩(1.2, 62.6%), 인니(0.4, 40.8%), 태국(0.4, 17.1%)

### □ 김

- (미국 119.8, 25.9↑) 조미김, 스낵김, 김부각 등 다양한 맛의 스낵용 리테일 김제품 인기
- (일본 87.9, 7.2↑) 일본 내 한류 및 한국식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되며 김밥 김, 조미김 등 수출 증가 지속
- (중국 70.0, △26.7) 상하이 봉쇄 해제되었으나 외부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둔화로 감소세

**474.7백만불(5.0%↑)**

주요 수출국 : 미국(119.8, 25.9%), 일본(87.9, 7.2%), 중국(70.0, △26.7%), 태국(29.0, 17.1%), 러시아(24.5, △15.4%), 대만(22.4, 22.3%)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 농진청 이슈



### 마늘 신품종 '홍산' 싱가포르 첫 수출 길 올라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육성한 신품종 마늘 '홍산'이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다양한 해외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8월 1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일반 마늘보다 껍질이 두껍고 수분 함량이 많은 '홍산' 마늘 특성상 장기간 선박운송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용 품질관리 기술을 적용했다. 마늘 건조부터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수출 상품화를 위한 관련 기술은 파속채소연구소에서 지원했다. 이번 시범 수출 결과를 바탕으로 '홍산' 마늘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장거리 해상운송 신선도 유지 기술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산' 마늘은 클로로필(엽록소) 기능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마늘 끝부분이 초록색을 띠는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있다. 클로로필은 항암 작용, 당뇨 완화, 조혈 작용,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늘의 주요 기능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 함량이 1kg당 1.9mg으로 일반 마늘보다 45% 이상 많고, 항산화 물질인 총 페놀(1.8mg/g)과 총 플라보노이드(0.2mg/g)도 풍부하다.



<마늘 '홍산' 주요 특성>

### 한여름 더위에도 잘 자라는 여름딸기 '미하' 현장 평가회

농촌진흥청은 8월 9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딸기 재배 농가에서 여름딸기 재배 농가와 유통·종묘 업체, 연구기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2019년 개발된 '미하'는 딸기가 생산되지 않는 6~11월에 안정적으로 재배, 생산할 수 있는 여름딸기로 더운 날씨에도 과육이 단단한 품종이다. 수량은 10아르(a)당 약 3.3톤으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수출한 외국 품종 '플라멩고'보다 2배가량 많다. 또한 기존 국산 여름딸기 '고하'(경도 26.1g/mm<sup>2</sup>)보다 더 단단(경도 36.2g/mm<sup>2</sup>)하고 모양도 좋다. 크기는 중소형(평균 13.7g)으로 큰 편이며, 원뿔 모양(원추형)으로 자라 제과용에 적합하다.

'미하'는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모양이 중요하고, 경도가 높을수록 수출에 유리한 여름딸기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수출 전용 품종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적의 재배지는 해발 500미터 이상의 고랭지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남 합천군 가야면 고랭지 지역에 여름딸기 수출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9~10월 사이에 동남아 지역에 '미하'를 과실로 수출할 계획이다.



과실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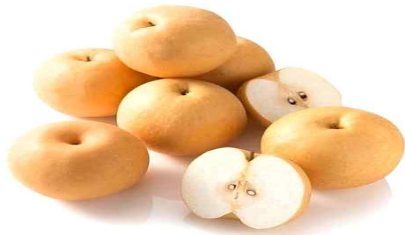
착과 모양



재배 전경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 과수화상병 확산에도 적극적인 검역 협상으로 국산 배 호주로 수출 가능

◇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올해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발생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주와 협상에 나서, 올해에도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의 호주 배 수출단지는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임을 입증받아 호주로 국산 배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산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가 위치한 4개 지역에 대한 과수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2022/2023 시즌 배 생과실 수출검역단지·과수원 목록 미국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과장 고경봉,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22/2023 시즌 미국 수출에 참여할 수출 수출검역단지·농가 목록을 미국측에 송부하였다. 검역본부는 지난 시즌 미국 수출 배에 대해 690건 약 9,000톤의 수출 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국 시장에서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검역본부는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http://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